

포천사회 知識人 ④

경북대학 권 승 혁 교수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대체의학 전문가과정 수료 후 양로원 경락·지압 봉사 계획

“경북대학에 부임하면서 포천시민으로 살고 있으며 포천시 국제화 정책추진에 있어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은 물론 체육교류시 국제통역을 담당해왔으며 포천시 국제화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대학 관광경영학과장 권승혁(47·사진)교수는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서 태어나 한천초등학교, 청주 주성중학교, 세광고등학교,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대동문화대학에서 일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 수료후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일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근대문학을 전공한 권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유아사기즈메의 조선인식’에서 조선총독부 당시 경찰관의 딸이었던 유아사기즈메가 조선사람들을 응호하는 소설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나 조선이 일본보다 나은 하부구조에 있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1992년 경북대학 교교 당시에 부임한 권 교수는 관광경영학과장으로 학사업무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개인생활 면담을 통해 어려운 점을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 상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전공을 통해 포천사회에 기여한 일에 대해 권 교수는 포천신용협동조합 지회에서 2년 동안 포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일본어강의를 실시했으며 자매도시와의 교류시 통역에 나섰으며 일본과의 국제교류 업무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 권 교수는 포천나눔의 집 운영위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2년 포천시민이 된 권 교수는 정년퇴임 후에도 이곳에서 살 계획이라며 자녀들도 포천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혔다.

“정직·성실”을 좌우명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공부해 줌 못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권 교수는 취미생활로 1995년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해 너무 좋아했는데 부상을 입고 이제는 대체의학과 동양철학에 관심을 갖고 관련 서적을 읽고 대진대학교 대체의학전문가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 배우면 양로원 등을



방문해 경락과 지압을 통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공관련한 학교행사는 일본의 오사카 시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1년에 두 차례씩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보통 30~40명씩 들어오는데 경북공과 명동 등을 안내하며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헤어질 때 일본 학생들은 한국어로 한국학생들은 일본어로 서로 인사를 하며 헤어진다고 한다.

권 교수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아시아권 방어를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협력 관계, 상호인식,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넓은 포용력, 아량과 용서가 필요하다.

권 교수는 서로의 편견의 근원을 파고 내려가서 논문으로 소개하고 서로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일어일본학회와 일본어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 교수는 포천신문이 꼭 보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지역신문은 지역의 소재를 다루는 신문으로 일반시민들이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시정을 소개하고 인사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해 경색해 있는 느낌, 딱딱한 느낌이 든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국제화센터가 세계교류의 센터가 되도록 운영계획 잘 세워야

취재파일 한미FTA체결 포천지역에 미치는 영향

농축산업 붕괴우려, 섬유업 환영 희비엇갈려

원산지 표시 강력단속 등 FTA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요구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돼지 400두를 사육하는 이인환 씨는 한미FTA 체결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기업형 축산농가보다는 영세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정부가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직불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영세 축산농가는 살아남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도 그는 “정부와 행정관서가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면 생각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 송아지 한 마리에 25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원가는 8-90만원이다. 또 도축에 들어가는 소 값이 700만원 이상인데, 원가는 500여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국내 축산물 시장은 그동안 너무 비싼 측면이 많았다고 말하고 이제라도 적절한 축산물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미FTA 체결이후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축산농가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우 2마리, 돼지 200두, 가금류 2천수 등이면 일률적으로 축산농가로 분류하고 있다. FTA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시행하는 축산농가 직불제 시행을 일률적으로 한다면 기업형 축산농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소형 축산농가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

포천지역에서는 한우 540여 농가, 젓소 360여 농가, 돼지 230여 농가, 닭 250여 농가 등 2천여 농가들이 축산농가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돼지 사육량 전국 4위권, 양계(닭)는 전국 최고 생산지역이다.

한미FTA체결 이후 포천지역 반응은 농축산업과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FTA체결에 따라 경쟁력 상실은 물론 농축산업 기반마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양기원 포천축협장은 그동안 축산업 전망이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일례로 축산농가 소득 2두, 돼지 200두, 닭 2천수 등으로 분류한 것은 영세 축산농가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축산농가 직불제 시행은 결국 영세 축산농가가 들어설 곳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섬유와 자동차 관련 산업은 FTA체결로 중국과의 품질은 물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중국 등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FTA체결이 어떤 품목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관련 산업계의 인터뷰 내용이다.

▶양기원 포천축협장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60세 이상이다. 10년 이후에는 노동력을 거의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10년 후에는 국내산 먹거리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또 FTA 체결이후 보상차원에서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나눠 먹기식 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농가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무마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천지역에는 2천여 축산농가가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었다고 하지만, 대가(소, 돼지)는 10년간 세이프가드가 시행되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쇠고기 수입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소 값이 크게 상승한 반면 돼지 값은 하락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FTA체결로 수입육이 증가하면 소와 돼지 가격이 동반 하락된다. 그동안 한우 사육농가는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과 사탕무 등 사료원료가 상승해 최근 사료값이 kg당 20원이 상승했고, 5월이나 6월경에 또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나 돼지 생산비의 80%가량은 사료값이 차지한다.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는 그야말로 갈 곳 없이 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냉장육이 아닌 냉장육으로 수입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된다. 냉장육으로 수입하게 되면 국내산 고기보다 육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제조업체 중에서 섬유와 자동차 업체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 섬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떤 품목이 유리한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섬유업종 가운데 니트와 코튼 등 면 종류는 미국 수출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한미 FTA 타결은 국제화 시대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세장벽이 철폐되었다고 해서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농축산물 등 불리한 품목도 있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경제는 한국경제와 경쟁하고 있지만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제품은 따라오지 못한다. 이번 한미 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철폐되어 중국 상품들은 기술과 가격경쟁에서 한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침체된 국내 섬유산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섬유업 종사자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에 노력해야 한다.

▶닭 가공업체

현재도 냉동육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체결은 양계산업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노계를 가공하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계농가들이 병어리 입식을 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닭 구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내 닭고기 소비율은 미국의 1/10, 일본의 1/2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닭고기 소비는 최고기 소비보다 많다. 닭 사육농가 반응이 어떠한지 지켜보면 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내 양계 농가가 붕괴하면 닭을 가공하는 업체로서는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로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 닭 구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 닭고기가 유통되면 닭고기 시장은 더 빨리 붕괴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발표대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7.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기간 중(추후 확정) -제4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시 개최
■장 소 : COEX 3층 컨퍼런스센터

●응 모

- 기 간 : 2007. 4. 12(목) ~ 5. 11(금)
■양 식 :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내려받음
■자 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사업장
■응모방법 : 대기업분야와 중소기업분야로 구분하여 신청
- 대기업분야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50억이상 건설현장)
- 중소기업분야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이상 250억미만 건설현장)
■접 수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교육홍보업무 담당부서

●응모내용

- 위원회운영 관련 노·사 협력적 안전보건경영 우수사례
■위원회 심의사항의 자율적 선정 및 의결사항 이행사례
■기타 사업장내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 우수활동사례 등

●심사방법

-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및 심사 → 사례발표 및 심사
※ 중대재해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시상내용

Table with 4 columns: 구분, 훈 격, 분 야 (대 기업, 중소기업), 시상내용. Rows include 대상, 금 상, 은 상 categories with specific award amounts.

●예 택

- 노동부장관상 수상사업장은 향후 1년간 노동부 점검 및 감독 면제
■대상 수상사업장 노·사 관계자 각 1명씩 해외산업시찰 실시(총 4명)

●문 의

- 문 의 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지도원 교육홍보업무 담당부서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참조
■전화번호 : 032)5100-665 (공단본부 교육홍보국)